

朝鮮後期 濟州教育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梁 鎮 健
(濟州大學校)

〈요 약〉

朝鮮後期の 대외적 도전에 대하여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정통성리학의 문맥에서 조선조 정치체제의 보위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斥邪衛正思想이다. 척사위정은 면암 최익현의 유배교학활동과 안달삼과 같은 제주도 사람들의 직접수업을 통한 기정진과의 만남에 의해 제주도에 전수된다.

면암의 순국은 제주도에서 의병운동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제주유림들은 集義契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항일의 의지를 불태웠는가하면 전라도 장성에 서 의병을 일으킨 기정진의 손자 寄宇萬, 寄參衍과 연계하여 의병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조선후기 척사논의의 영향과 의의를 보여준다.

조선후기 척사위정사상의 영향으로 제주교육의 독특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영향은 제주도의 조천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일제시대의 다양한 제주도 민족교육운동으로 재현됨으로써 제주교육의 면모를 새롭게 드러낸다.

주제어 : 조선후기, 척사위정, 최익현, 기정진, 안달삼, 집의계, 의병운동, 민족교육운동

* 원고접수 : 2006. 11. 24 게재승인 : 2006. 12. 18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B00373).

I. 序 論

朝鮮後期에 들면서 사회는 세도정치로 인한 제반 폐해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

K C I

가재정은 위축일로에 있었고 삼정문란으로 인한 세정의 불공정과 지방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국가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개항 직전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조선조 정치체제가 이상으로 삼았던 天命德治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세도정치로 변질되었고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요소들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 기반으로 했던 체제의 안정은 급속하게 와해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이미 내부적으로 분해과정을 걷고 있던 조선조 정치체제를 향하여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 외부로부터 오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19세기 중엽부터 동아시아에 압도적으로 밀어닥친 西勢의 도전과 그 영향을 뜻하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조보다 먼저 서세와 교접한 일본과 청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침략적 간섭을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하여 조선조 체제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의 대외적 도전에 대하여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정통성리학의 문맥에서 조선조 정치체제의 보위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斥邪衛正 사상이다.

이 시기에 들어 비록 국가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문제의식은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民亂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민들의 문제의식이 강화됨으로써 교육적 변혁성과 건강성이 증대되던 시기 역시 조선후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出陸抑制政策에 의해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출륙에 의한 直接修業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敎學的 自生力이 증대되었으며 이로써 한 시대의 사상적 격랑에 몸소 동참하며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교육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후기 제주도의 독특한 교육문화 형성에 일조를 한 대표적인 사상이 척사위정사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斥邪論議의 영향과 그 의의를 밝힘으로써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사상사적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조선조 제주교육사의 내용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를 보강함은 물론 한국교육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에 끼친 斥邪論議의 영향과 그 의의를 밝힐 수 있는 1차 地方史料의 절대적 빈곤으로 제주교육에 끼친 특정학파의 사상으로서 척사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인간관계 혹은 심성론을 중심으로 언급이 되 수밖에

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 혹은 심성론도 당대의 학문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제주도에는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한계를 대신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朝鮮後期 教育思想의 內容과 展開

조선후기 성리학의 학통과 이에 기초한 교육사상의 맥락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9세기 전반에 와서 조선조의 정통적 성리학 사상이 華西 李恒老, 蘆沙 奇正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에 의해서 재정비됨으로써 그 학통이 이어지고 19세기 중엽 西勢東漸의 충격이 시작되자 조선조 성리학의 기초 위에서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즉 19세기의 척사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철학적 기초는 강력한 主理論의 경향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조선조 정치체제의 대외 관계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조선조의 체제보위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척사논의는 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고 외세를 氣로 보는 자존적 의식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와 같이 조선조의 정통 성리학 사상은 정치체제 내 권력구조와 전통적 결합관계로부터 분화되어 排外勤 민족주의 경향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士林 중심의 斥邪派와 官人 중심의 執權派로 분리된다.

정치체제를 윤리적 가치체제와 동일시하는 성리학적 사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질적 윤리체계로서의 외국의 정치문화와 교섭을 갖거나 그것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곧 이단에 의한 자국 정체의 침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內修外攘이 제시되고 여기에서 外攘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內修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성리학 사상에 기초한 正道政治의 확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척사사상의 이론적 기수였던 화서나 노사의 內修外攘論이 대체로 보아 첫째로 군주의 正心克己, 둘째로 洋貨, 洋物의 排斥禁斷, 셋째로 외세의 도전에 대한 誅捕征伐의 순으로 개진되고 있음에서 그러한 요지를 보게 된다.

그런데 蘆沙의 唯理一元論의 斥邪論議는 그 뒤 사상사적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華西의 主理二元論勤 척사논의는 그의 門人들에 의해 이어지며 특히 重菴 金平默에 의해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한 발전을 보게 된다. 19세기 후반 척사논의의 큰

흐름은 重菴에 의한 이론적 발전을 거쳐 省齋 柳重教 등의 斥和論으로, 그리고 毅菴 柳麟錫 등의 救國義兵運動으로 승계되며 한편 重庵의 동문수학인 勉菴 崔益鉉 등에 의해 척사운동으로 확산되었다.¹⁾

결국 이들 학파는 19세기 말엽에 역사적 상황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사적 변천에 저항하는 보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척사위정의 민족 주체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서학과와 노사학과는 의거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擧義掃清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척사위정류의 사상적 전개가 만개된다.

2. 朝鮮後期 濟州儒林의 教育實像

조선조의 교학질서는 지역적인 이유와 더불어 自派勢力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영남학과와 기호학과로 대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파와 계보적 정통성을 이룬다는 견지에서 특정 학파나 학통에 대한 士林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다. 즉 각기 다른 계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사제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특정 유파적 연대의식은 매우 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조선조 교학질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영남학과나 기호학과내의 사람들이 유배인의 신분으로 來島함에 따라 제주유림들이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학파의 분위기와도 쉽게 동화함으로 하여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일종의 혼란상을 노정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제주도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遠惡의 島配地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특정 학파의 영향력을 고집할 만한 학문적 자생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학문적 자생력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떠한 정책적 의도 때문에 학문적 전통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주도에 대한 봉건적 수탈이나 출륙억제정책 같은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생존을 위한 경지면적의 절대적인 부족과 경지의 척박, 그리고 원시 농법의 답습은

1) 李澤微, 朝鮮後期 斥邪論議의 展開와 그 意義, 『朝鮮朝政治思想研究』,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第4輯, pp.163-165.

지주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은 대개 같은 경제적 조건을 가진 자작 겸 소작농으로서 농민층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열악한 조건 아래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주도 사람은 한편으로는 어업이나 수공업 등에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목장토 및 화전 등의 국유지의 경작과 관방전 및 아문둔전 등의 공토의 경작 등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세 및 화전세 등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더구나 이것은 점점 인상되어 제주도민을 다시 궁핍케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國家地主制를 통한 관의 봉건적 수탈은 19세기 후반에 가중되었다.

한편 제주도에는 경지의 대부분을 밭이 차지하고 있었고 밭은 기후 등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굴 등의 특용작물의 재배와 목축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특용작물 및 말 등은 그 대부분이 현물지대의 형태로 공납되었으며 이 공납에는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에 의한 자의적 수탈이 자주 자행되어 제주도 사람을 특히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도 사람은 생계의 보조수단으로서 미역, 전복 등의 해산물과 양태 등의 수공업생산물을 통하여 충청, 전라도 지방의 내륙상인에게서 식량과 포목 등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주도 사람은 항상 약자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교육의 전통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출륙억제정책이라는 약 200여년 지속되었던 이 특수정책은 제주도의 대외적인 교육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아 근대에 이르도록 제주도로 하여금 폐쇄적인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는데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교육을 폐쇄화시킨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결국 출륙억제정책의 여파로 제주도 교육은 유배인들에게 의존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주도 사람들은 아직은 교육의 객체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을 고집할 입장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적 수탈과 출륙억제 같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敎育的 力量은 향교나 서원 등의 공식적인 경로와 유배인과의 師友 講習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축적되었고 이는 결국 후기에 들어 출륙억제와 같은 제도적 금압정책의 극복을 위한 動因이 된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축적된 교육적 역량을 기반으로 純祖年間(1820년대)에 이르러 출륙억제정책은 해제되었으며 이후 제주도의 교육도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다.

즉 많은 제주문사들이 출륙을 하여 여러 鉅儒들 밑에서 직접수업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또한 제주도

로 다시 들어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하여 교육의 주체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유파적 연대의식이 조성되는 등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교육적 활기를 찾게 된다. 특히 이러한 유파의식은 李恒老의 華西學派, 奇正鎭의 蘆沙學派로 대별되는 척사위정 사상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전개됨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교육문화를 형성하게 된다.²⁾

3. 朝鮮後期 斥邪論議와 濟州島

1) 화서학과 척사론과 제주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후기의 척사론을 주도하던 華西學派의 사상은 화서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勉菴 崔益鉉의 유배로 제주도에 소개된다.

최익현은 본관이 慶州이고 호는 勉庵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였다. 李恒老의 문인으로 1855년(철종 6)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 典籍·사헌부 持平·사간원 正言·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수봉관·지방관·연관 등을 역임하며 강직성을 드러내 불의·부정을 척결하여, 관명을 날리고, 1868년(고종 5)에 경복궁 중건의 중지, 當百錢 발행에 따르는 재정의 파탄 등을 들어 대원군의 실정을 상소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했다. 1873년 동부승지로 기용되자 명성황후 측근 등 반 대원군 세력과 제휴, 서원 철폐 등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하고, 호조참판으로 승진되자 다시 대원군의 실정 사례를 낱알이 열거, 왕의 親政, 대원군의 퇴출을 노골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대원군 실각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으나, 君父를 논박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형식상 제주도에 圍籬安置되었다.

면암은 1873년 12월 3일(무인)에 소안도에서 첫답이 올 무렵인 축시 경에 배를 띄워 사시에 제주도 조천포에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배 생활에 들어갔다. 면암의 유배생활은 곧바로 서재생활로 이어졌는데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 1권을 빌어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⁴⁾고 하였다. 면암의 잠심완색은 선조 성리학자들이 대개 그러하였듯이 주자의 독서론과 맥이 닿아 있는 독서 방법론이다. 이것은 면암이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었다는 사실

2) 拙著, 『濟州教育行政史』, (중보판), 濟州文化, 2001. pp.73-267

3) 『勉菴集』, 年譜, “十二月乙亥丁丑登船櫓行七十里抵所安島戊寅鷄鳴發船已時到泊濟州朝天浦”

4) 『勉菴集』, 年譜, “先生杜門燕居日將朱子書栞環讀又借校宮所儲尤菴集日帙潛心玩索 忘湘累又苦”

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면암은 유배지 서재생활의 텍스트로서 왜 하필 주자와 우암 송시열을 선택했을까? 퇴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여 조선후기 영남학과와 기호학파의 성리학자들은 퇴계의 理氣互發說과 율곡의 氣發一途說의 대립에 따라 이기설의 끝없는 철학적 개념논쟁을 계속하면서 이를 심화시켜 갔다. 면암의 스승인 화서는 이러한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리설로 하나의 정점을 이룸으로써 한말 성리학의 이론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런데 화서는 “주자를 종주로 삼지 않으면 공자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宋子(송시열)를 본받지 않으면 주자의 정통에 접할 수 없다”⁵⁾고 언명하여 그 자신의 학통에 대해 공자 → 주자 → 우암 → 화서로 이어지는 맥락을 제시하였으며 그 뒤 화서학파에서는 언제나 이 학맥을 도학의 정통으로 확인하였던 까닭에 결과적으로 면암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주자와 우암의 봉심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면암은 제주 직소에서 교궁에 간직된 『尤菴集』을 빌어 잠심완색하였으며 우암이 귀양살이하던 집에 세운 「尤翁謫廬碑」를 奉審하고⁶⁾ 한편 「掛弓軒次板上韻」⁷⁾이라는 시를 통해 면암은 유배의 심경을 우암을 빌어 토로한다. 그런가하면 제주도에서 면암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한가할 때 宋書(송자대전)를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건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⁸⁾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동문인 중암 김평묵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는 「누생은 망령되게 송서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령을 만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읽는 법을 두세 줄 글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⁹⁾라는 구절이 있는 것들을 볼 때 그의 우암 봉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면암은 서재생활을 빌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 가장 활력이 넘쳤던 41세에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학문적 교호관계의 단절을 매우 우려했던 것 같다. 큰아들 永祚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만 멀리 떨어져서 스승과 벗의 접촉이 드물게 되었으므로 구구한 근심이 실로 적지 아니하다.」¹⁰⁾거나 「스승을 가까이 하고 벗을 사귀면서 지혜와 견식을 넓히지 못하는 듯하니, 그 낭패를 말할 수 없다.」¹¹⁾고 토로했다.

5) 『華西集』, 附錄 卷9, 5, 年譜, “學者不宗主朱子無以入得孔子門庭不憲章宋子無以接得朱子統緒”

6) 『勉菴集』, 年譜, “三月奉審尤翁謫廬碑由天一亭運籌堂至橘林書院舊址”

7) 『勉菴集』, 詩, “掛弓軒次板上韻”

8) 『勉菴集』, 書, “答永祚甲戌四月十日”, “余閑中看宋書日愧前者浪度幾之爲見也”

9) 『勉菴集』, 書, “上金重菴甲戌十月二十二日”, “生妄以宋書近數朔掛目而未得其領要之萬一幸以讀法數三行下示如何”

10) 『勉菴集』, 書, “與永祚甲戌二月十日” “但以錄校離索罕接師友則區區憂慮”

이러한 토로가 단순히 사람과의 접촉을 그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다만 3년 동안이나 사우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 1치쯤의 진진이 오늘날 1자쯤의 후퇴를 먼치 못하니 멀리서 탄식하고 애석히 여기는 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다.」¹²⁾ 라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 면암이 원했던 것은 학문 勉勵의 분위기 바로 그것이였다. 동문인 유기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園棘安置되어 資益할 길이 없으니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¹³⁾라고 하였듯이 면암은 친구간에 학문을 면려하는 자익의 분위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면암이 고대했던 자익의 분위기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승 관계와 친교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당대 화서학과 특유의 학문적 교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두고 면암은 사문이라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 사문이란 스승의 문하를 지칭하는 師門은 물론이거니와 유교의 문화를 일컫는 斯文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師門이란 斯文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따라서 면암에게 중요한 것은 사문에 대한 그리움이며 나아가 그것은 곧 사문의 보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면암은 당시 자신의 상소로 인해 사문의 후사가 끊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던¹⁴⁾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화서 사후 화서학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김평묵에게 보낸 편지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어 위로 사문을 부지하고 제생을 위로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¹⁵⁾라고 사문의 보존을 부탁한다..

제주도에서 비록 면암이 고대했던 자익의 분위기를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왕래 종유자들로 인해 면암의 학문적 교호관계의 단절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외지인들의 내방은 물론이며 제주문사들의 왕래 종유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외지인으로는 호서 사람 맹문호, 최영환, 호남 사람 최승현, 박해량, 김효환, 김형배, 안진환, 이필세¹⁶⁾ 등의 방문을 받는데 유배인의 처지에 이렇게 많은 외지인들이 내방을 받은 경우도 면암이 유일하다.

제주도 유배를 전후로 면암은 경기도 포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화서학풍을 경기도 북부지역과 넓게는 강원 지역으로 전파하는데 일조를 했다. 후일 화서학풍이 청양을 중심으로 호서 서부와 호남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은 면암이 만년에 충남 청양

11) 『勉菴集』, 書, 「答永祚甲戌十月二十日」, “而以未得親師就友以進知見則其爲候損不可說也”

12) 『勉菴集』, 書, 「答永祚乙亥二月二十一日」 “只三年離索昔者寸進未免尺退遠外歎惜不可言也推除去客念”

13) 『勉菴集』, 書, 「答柳聖存基一甲戌三月」 “而至其越海囚棘資益無地則不勝憧憧也”

14) 『勉菴集』, 書, 「上金重菴 甲戌十月二十二日」 “矣等恐師門後事因此遷就而未有其期也”

15) 『勉菴集』, 書, 「上金重菴 甲戌」, “千萬實 上扶斯文下殿諸生區區伏望耳”

16) 『勉菴集』, 年譜, “湖西人孟文浩崔榮煥湖南人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衡培安璉煥李弼世皆越海末 ”

으로 이거 하였기 때문인데 제주도에서 호서와 호남사람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아 이거 이전부터 면암은 이미 호서와 호남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안달삼, 김희정, 강기석, 김용징, 김훈, 김치용, 김양수¹⁷⁾ 그리고 이기온, 강철호¹⁸⁾ 등의 제주문사들도 면암과 종유하였다. 원래 從遊란 학덕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는 행위로서 고위 政客이 제주도에 유배를 왔을 때 제주문사들이 행하는 친교의 대표적인 행위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래 종유했던 제주문사들 가운데 안달삼은 한말도학의 3대 학파 가운데 하나인 장성의 노사 기정진이 연원¹⁹⁾인 노사학파의 한 사람으로 면암과 노사를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김희정은 제주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면암이 門人이라 칭했고²⁰⁾ 후일 면암의 사우록에도 등재²¹⁾된 사람으로서 명실공히 면암의 濟州初傳(제주도 1대 제자)이다. 당시 제주유림에서는 道學으로는 안달삼을, 詩學으로는 김희정을 南洲 제일인자로 손꼽았는데 그들의 능력은 면암과의 종유로 더욱 확장된다. 면암이 해배될 때 김희정을 동행²²⁾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면암의 김희정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강기석은 1858년에 진사에 급제했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되었을 때 내방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암보다 연장자였음이 분명한데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종유한다. 이 점은 이기온 역시 마찬가지였다.

2) 노사학파 척사론과 제주도

노사의 문인 가운데 執贄(제자 예를 통한 執經受業)의 형식을 갖춘 제주도 사람으로는 安達三이 유일하며 따라서 그를 제주지역 노사학파의 初傳(제1대 제자)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안달삼은 제주도에 유배와 있는 면암 崔익현과 從遊하는 동안 자신의 스승인 노사 기정진의 '疏章, 序, 記, 理氣說' 약간 편을 옮겨 등사한 것' 등 여러 편의 글을 보여주는데²³⁾ 이 때 면암은 '이는 우리 화서 선생의 지결과 대략 비슷하다'고 등초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²⁴⁾

17) 『勉菴集』, 年譜, "島中文士安達三金義正姜基碩金龍徵金堧金致琿金養洙諸人往來從遊"

18) 濟州島教育研究院, 『濟州教育通史』, 1974, pp.85~102.

19)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參照.

20) 『勉菴集』, 年譜, "門人金義正舊館人尹奇福陪行"

21)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參照.

22) 脚注18) 參照

23) 『勉菴集』, 書, "以島中時移謫安達三所藏門下文字疏章書記理氣說若干篇者出而示之"

24) 『勉菴集』, 年譜, "先生自少景仰奇公德義曾於在謫時因其門人安達三得見其論學文字數十篇以爲

안달삼의 주선으로 면암은 1년 반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고 43세에 해배되어 올라오는 길에 장성 하사로 78세의 노사 기정진을 예방한다. 노사는 면암의 스승인 화서와 더불어 병인양요 때 척화상소를 올렸던 한말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면암의 예방은 감격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 감격을 두고 면암은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보았고 장성을 지날 적에는 기정진을 뵈었다」²⁵⁾고 하였다.

이러한 면암과 노사의 만남, 다시 말해 한말도학의 양대 산맥 격인 화서학과와 노사학과의 만남을 가능케 한 사람이 바로 제주도 사람 안달삼이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안달삼은 노사학과의 학문적 전통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으로서 면암과 노사의 만남을 가능케 함은 물론 조선 후기 제주도의 교육문화를 매우 다양하게 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안달삼의 주선에 의한 면암의 노사 예방은 면암 개인의 감격을 넘어 조선 후기 사상사의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蘆沙學派는 비교적 제주도 사람들의 출륙이 용이했던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서부 지역까지 뻗어 있었으며 제주도 사람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 梁觀, 玄尙希 등이 長城에서 기정진에게 직접수업함으로써 그 학풍을 접하게 된다. 특히 안달삼, 고성겸, 이계징은 기정진의 師友錄에도 등재되어 있어 기정진의 初傳임을 입증하고 있다.

안달삼은 이한우에게서 첫 수업을 하고 출륙을 하여 장성의 기정진 문하에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그는 心性論의 논구에 주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四端七情論 문제에 주력하게 된다. 사단칠정론이란 주지하다시피 퇴계에서 비롯된 心性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 당시 奇大升과의 사이에서만도 왕복서신으로 8년여에 걸쳐 논변을 벌였으며 그 뒤로는 한국의 온 性理學界가 3세기 여에 걸쳐 열정적으로 이를 논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논구로 해서 사단칠정론은 한국철학의 한 특색을 이루게 된다.

안달삼은 “四端七情이 같음은 그 마음이 發한 것이니 端을 넷으로 말하고 情을 일곱으로 이름하니 무슨 까닭인가”²⁶⁾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四端과 七情이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다만 부분적인 情이나 전체적인 情이냐의 차이에 의할 뿐이며 따라서 四端은 七情의 범위를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四端과 七情을 대립적인 관계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인식은 退溪의 전통인 理氣互發의 立場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奇大升의 理氣兼發의 입장에 가깝다.

此與我華西先生旨訣大 相以達騰秒爲二冊子而歸”

25) 『勉菴集』, 書, “吾在濟州見漢羅過長城奇丈席”

26) 奇正鎮, 『蘆沙集』. “四端七情同是此心之發而端以四言情以七名何也”

따라서 안달삼은 퇴계의 주리론적 견해를 답습하면서 주기론적 견해를 배격하였던 스승 기정진과는 대치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달삼의 사단칠정에 관한 의문에 대해 기정진은 “四七은 비록 숫자 항목이 되나 네 가지 덕목의 四와 일곱 가지 情理의 七은 그 내력과 경중이 같지 않다”²⁷⁾고 一分殊의 입장을 천명하게 된다.

안달삼은 “陰陽의 物性的 意味”²⁸⁾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는데 이 또한 그의 주기론적 관심의 일단을 엿보여주는 예이다. 이로 보건데 그는 기정진의 문하에서 주리론적 전통의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지만 주기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일 안달삼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유물론적 사회사상의 개진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그의 주기론적 관심은 家學的 傳統으로 계승되고 후대에 들어 唯物論的 思考方式으로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관심에 대해 기정진은 “陰陽이 비록 큰 구분이 있으나 또한 서로 떨어져서 얻지 못하니 무릇 이르기를 陰物陽物이라는 것은 그 큰 구분을 좇아서 말한 것이지만 음양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²⁹⁾라고 하면서 태극은 理이며 음양은 氣라는 세계의 시원적 실재로서의 理의 일차성을 설명해준다.

교육과 관련한 안달삼의 관심은 “道는 古今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데 高금에 다르게 보이니 이는 어떠한 까닭인가”³⁰⁾하는 도덕교육적인 문제였다. 이것은 그가 道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의 상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하는 물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요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道를 절대적인 天理로 규정하여 결국 변치한 봉건적 도덕질서를 합리화하였던 기존의 사회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된 것으로 안달삼의 진일보한 윤리도덕적 견해를 대변함과 동시에 조선후기 사회질서의 갈등을 시사하는 예이기도 하다.

안달삼은 제주도에 돌아와 訓學을 하게 되면서 유배 중이던 최익현과 교분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때 그는 스승 기정진의 글을 최익현에게 보여 줌으로써 기정진과 최익현의 만남을 중재한다. 즉 최익현은 일찍부터 기정진의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학문을 구체적으로 접한 적이 없다가 제주도에서 만난 안달삼을 통하여 기정진의 글 수십 편을 읽어 보고는 자기의 스승인 李恒老의 학설과 흡사하여 기뻐한 나머지 두 권의 책으로 베껴서 가지고 있던 중 해배가 되자 장성을 지나며 기정진을 직접 뵈고 숭모의 정을 토로했었다는 말이다.

27) 上揭書, “四七雖同爲數目而四德之四七情之七其來歷輕重迥然不”

28) 上揭書, “陰陽之物性味之偏”

29) 上揭書, “陰陽雖有大分亦相離不得凡曰陰物陽物者從其大分而言也非獨陰孤陽之謂”

30) 上揭書, “道無古今之異而古今異宜何也”

기정진이나 최익현과 같은 거유들과 직접 면대할 수 있었던 안달삼으로서는 그의 학문의 폭도 깊고 넓어 道學의 南方師表라 불림을 받았으며 그의 학문은 아들 安秉宅에게 家學으로 계승되고 안병택은 부백심이나 김석익, 김균배, 양찬휴, 현상희, 양성하 등의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도의 큰 學脈을 형성하게 된다.

4. 濟州教育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意義

1) 의병운동과 비밀결사

1906년 면암은 개화정책에 반대하고 일본의 국권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가 결국 대마도에 붙잡혀가서 74세로 죽음을 맞게 된다. 을미조약 이후 전국적으로는 여러 의병운동이 있었지만 제주도에는 아직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면암이 74세의 나이로 泰仁에서 거병 하었다가 淳昌에서 잡혀 결국 대마도에 끌려가 순국하였다는 소식은 제주의병운동을 점화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면암이 대마도에서 감금된 지 4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나자 유림들은 '春秋大義 日月高忠'이라고 써서 높이 걸었고 수만 명이 찾아와 초량에 도착한 시신 앞에서 애곡 하였던 까닭에 3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제주문사들이 그 소식을 외면할 리 없었다.

면암의 순국 소식에 자극을 받은 제주유림 고사훈, 이석공, 김석윤, 조인관, 노상옥 등은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을 당한 것을 계기로 1908년 의병운동을 도모하게 된다. 결국 면암의 제주교학활동은 제주의병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자양이었던 셈이다.

그들은 전라도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기정진의 손자 寄字萬, 寄參衍과 연결되어 비밀리에 광양에 倡義所를 마련하여 황사평에서 조련하였다. 당시 倡義總師는 김석윤, 참모와 모병은 고사훈, 조련과 무기는 노성옥이 담당하였다. 1909년 2월 경 참모장 고사훈은 의병 金萬石을 대동하여 대정현에서 격문을 돌리고 의병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왜경들에게 체포되어 서광리에서 김만석과 함께 순국하였다. 그리고 김석윤은 제주시 광양 창의소를 급습한 일경에게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노상옥은 육지로 탈출하였다.

이때 그들이 돌린 격문은 비장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국은에 대한 충성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다. 만약 자식으로서 부모의 곤궁함을 구하지 못하면 불효요, 나라의 위급함을 걱정하여 나서지 않으면 불충이 되는 것이니 이는 禽獸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교활한 왜적이 병자년 이래 감언이설과 강

압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더니 乙巳條規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눈앞에는 왜적의 무리가 강산을 짓밟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이 강토를 송두리채 삼킬 것이요, 우리들은 왜적의 노예가 될 터이니 이 어찌 좌시할 수 있으랴. 오호라! 天道가 무심하리오. 경향 각지의 忠義志士들은 국권수호를 위하여 蹶起하였다. 우리 제주민도 盡忠報恩하고 자손만대에 先을 지키게 할 때가 왔도다. 피 끓은 충의지사는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성은에 보답할 자는 義聲을 합창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지키는 데 생사를 같이 한다면 이보다 다행하고 이보다 더한 忠孝가 어디 있으랴. 熱血의 충의지사여, 팔뚝을 걷어 부치고 총궐기하라.」³¹⁾

격문에서 보듯이 면암의 순국이 제주문사들에게 의병운동의 이념을 배가시켜 주었다면 노사 기정진의 손자인 의병대장 기우만은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병운동의 현실성을 강화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주의병운동이 화서학과 노사학과의 전통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사의 척사논의는 그 뒤 사상사적 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화서의 척사논의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고 특히 면암에 의해 척사운동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의 의병운동을 보면 면암의 영향은 물론이며 노사학과의 척사논의마저 노사의 손자인 기우만을 통해 제대로 전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제주도 항일운동으로 비밀결사 集義契가 있다. 집의계는 면암이 제주유배 때 왕래 중유했던 제주문사 이기온의 아들인 이용호가 주도한 모임으로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사항쟁을 맹약한 일종의 비밀결사이다. 집의계에는 이용호를 비롯하여 김좌검, 김병로, 김병구, 김이중, 서병수, 고석구, 김석익, 강철호, 강석중, 임성숙, 김기수 등 12명의 제주문사들이 뜻을 같이 한다.

12명 가운데 이용호는 이기온의 아들로서 노사 기정진의 문인인 고성검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면암의 영향을 가학으로 승계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강철호는 면암과 직접 왕래 중유했던 사람이며 김병로는 이기온의 제자로서 모두 면암의 영향이 컸던 제주문사들이다. 그런가하면 김좌검은 추사 김정희의 중유자였다. 이로써 보건대 집의계 결성 역시 화서학과 노사학과의 전통 아래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무릇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천지를 공경하고 神明을 숭례하며 忠君愛國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遺命이거늘, 슬프다. 우리 태조께서 조선을 건국하신지 3백여 년이 흘러오는 중엽에는 왜국과 청국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아왔다. 이제 고종 광무에 이르러서는 守古黨, 開化黨의 분쟁과 간신 모리배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衰盡했다. 倭寇는 그 시기를 타서 광무 9년 을사보

31)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p.226-227.

호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게 合邦의 凶計임을 알게 되고 長成의 寄宇萬의 義舉를 일으킨 때를 맞추어 동지 약간인과 더불어 의논하고 集義契를 결성하는 바이다.³²⁾ 라는 집의계 취지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체제의 자강이라는 기조 위에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그들의 민족의식은 제주의병운동이 그러하듯이 주자학적 화이론에 연결된 차등적 배타의식이 성숙하여 외세라는 변수를 맞이하여서는 민족적 역사실천의식으로 심화된 자주독립사상이었다.

2) 민족교육운동으로의 전개

조선후기 척사론의 영향으로 일어난 제주도 의병운동과 비밀결사는 이후 일제시대 제주도의 민족교육운동과 항일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3월 21일에 일어난 제주도 조천만세운동은 척사론의 영향으로 심화된 제주도 나름의 자주독립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 기독교계의 조봉호와 함께 1919년 5월 초 군자금 기금모금을 위해 獨立犧牲會를 조직하였던 최정식의 기록³³⁾을 보면 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조천만세운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유림은 물론 각 계에 대한 조천만세운동의 파장이 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노사 기정진의 제자이자 면암 최익현과 교류했던 안달삼의 손자인 안세훈은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제주도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 역시 「조선공산당 야체이카」 사건 판결에서 「대정8년 제주도에서 조선독립만세 소요사건이 발생하자 여기에 자극을 받고 점차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³⁴⁾고 웅변하는데 조선후기 척사론의 영향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교육저항운동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1921년 김성숙에 의해 설립된 제주도 가파도의 신유의숙³⁵⁾의 경우는 전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출발하였던 일제하 제주도 민중교육의 모범적인 예이다. 그런가하면 1920년 한학자이며 신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이선익에 의해 독립을 위한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북촌에 설립된 창흥사숙³⁶⁾ 또한 의의가 크다. 신유의숙이나 창흥사숙의 운동이 사립학교를 기반으로 한 민족교육운동이

32)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p.212.

33) 濟州市, 『慕忠祠記』, p.73.

34) 光州地方法院刑事部, 『判決文』, 昭和 17年 8月 13日, 參照.

35) 濟州4·3研究所,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뭉쳐 일어나서야...”, 『4·3 長征』, 1990.8.11, pp.23~38.

36) 濟州4.3研究所, “北村里 歷史(1)”, pp.39~52. 濟州4.3研究所, “北村里 歷史(2)” 『4·3長征 3』, 1990.11, pp.26~39.

었다면 공립학교운동으로는 구우공립보통학교³⁷⁾의 경우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립보통학교 편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민족주의적 색채를 공공연히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우공립보통학교의 경우는 특히 초창기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한 노선 견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다.

일제하 식민지 제도교육으로부터 배제된 기층민중들의 의식화를 위한 민중교육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운동이 곧 민중야학운동이다. 제주도의 민중야학운동은 3·1운동 이후 제주 청년들이 계몽운동 차원에서 노동야학을 개설, 교사로 참여하여 대중계몽을 벌임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듯 1920년대의 야학운동은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담당자로 시작하고 있고, 후반기에 가서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해 진다.

물론 1920년 이전에 조천에서 한 여성에 의해 설립되어 교사 2명이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조선부녀야학³⁸⁾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야학운동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22년에 구좌면 김녕리에 김녕청년회가 설립한 연경야학회³⁹⁾가 있었고 1925년 함덕의 협성청년회가 설립한 노동야학회⁴⁰⁾와 함께 같은 해 구좌면 상도리청년회가 설립한 상도야학회⁴¹⁾가 있었다.

이러한 야학운동 같은 것들은 제주도 독자적 단위의 교육운동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벌였던 교육운동도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 지방부 조직으로서 제주지부를 결성하였던 예이다. 원래 민립대학운동은 한말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시작되고 3·1운동을 계기로 강화된 민간인에 의한 교육진흥운동으로서 민족적 자립에 필요한 학술적 근거와 시설에 대한 일련의 민중적 요구운동이었다. 이를 위해 1923년 3월 29일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가 열렸고 이어 자본금 1천만원 모금을 위해 기성회 지방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직된 지방부는 백여 곳으로 제주도에서도 기성회가 거도적으로 조직되었다.

제주도의 민족교육운동은 학생운동으로도 나타났는데 1926년 7월의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柳田 교사 배격 동맹휴학⁴²⁾이나 1927년 5월 대정공립보통학교 삼사학년 100여 명이 교사를 배척하여 벌인 동맹휴학사건⁴³⁾ 1928년 2월 제주공립보통학교 생도들의 동맹휴학사건⁴⁴⁾ 1930년 1월 신년축하식을 거행하는데 일본국가와 勅語奉答歌

37) 濟州4.3研究所, 『濟州抗爭』, 서울: 實踐文學社, 1991, pp.212~216.

38) 『東亞日報』, 1926년 5월 20日字.

39) 『東亞日報』, 1922년 12월 2日字.

40) 『東亞日報』, 1925년 10월 19日字.

41) 『東亞日報』, 1925년 11월 14日字.

42)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pp.984~989.

43) 『東亞日報』 1927년 5월 18日字.

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학교와 경찰이 합세하여 4명의 학생을 퇴학시켰던 조천리 소년단원 피검사건,⁴⁵⁾ 5월 어린이날 행사의 하나로 행군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하여 30여 명을 검거하였던 대정면 어린이날 사건,⁴⁶⁾ 5월 구우공립보통학교 동맹휴교사건,⁴⁷⁾ 1931년 1월 조천공립보통학교 학생사건,⁴⁸⁾ 2월 화북리 청년동맹원의 소년들에 대한 선동사건,⁴⁹⁾ 3월의 제주농업학교 교장 폭행사건,⁵⁰⁾ 5월의 구우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사건⁵¹⁾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민족적, 계급적 자각은 후일 1941년 金奉角 등에 의해 조선독립을 위한 일본내 제주청년들의 비밀결사인 鷄林同志會의 결성⁵²⁾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해방 후 제주도 4·3사건의 저변적 이데올로기 구실도 하게 된다.

III. 結 論

朝鮮後期の 새로운 상황 전개에 대하여 조선조 체제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의 대외적 도전에 대하여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정통성리학의 문맥에서 조선조 정치체제의 보위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斥邪衛正思想이다. 시대적 갈등에 대한 정통유학의 대응방식이었던 척사위정은 면암 최익현의 유배교학활동과 안달삼과 같은 제주도 사람들의 출륙에 의한 기정진과의 執贊關係에 의해 전수된다.

제주도에 척사위정사상을 전파했던 면암의 순국은 제주도에 의병운동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특히 면암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제주유림들은 集義契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항일의 의지를 불태웠는가하면 제주도의 젊은 유림들은 전라도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기정진의 손자 寄宇萬, 寄參衍과 연계하여 의병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조선후기 척사논의의 영향과 의의를 보여준다.

조선후기 척사위정사상의 영향으로 한 시대의 사상적 격랑에 몸소 동참함으로써

44)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pp.990~992.

45) 『濟州道誌』 上, p.397.

46) 『濟州道誌』, p.397.

47) 『犯罪報告』, p.188.

48)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p.992.

49) 『犯罪報告』, pp.139~140.

50) 『犯罪報告』, p.197.

51) 『犯罪報告』, p.188.

52) 金奉角, 『현해탄을 넘어서』, 濟州文化, 1990, 參照.

변혁성과 건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교육의 독특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영향은 제주도의 조천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일제시대의 다양한 제주도 민족교육운동으로 재현됨으로써 제주교육의 면모를 새롭게 함은 물론 해방이후 제주도 4.3사건의 저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K C I

參 考 文 獻

朝鮮王朝實錄

朱子語類

耽羅錄

朴世采. 東儒師友錄.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奇正鎭. 蘆沙集

李恒老. 華西集

崔益鉉. 勉菴集

김봉옥(2001).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 1974.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 소화 17년 8월 13일.

김봉각(1990). 현해탄을 넘어서, 제주문화.

김봉옥(1987). 제주통사, 제주:제주문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동아일보

범죄보고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양진건(2001). 제주교육행정사(중보판). 제주문화.

이기백(1984). 한국사신론. 서울:일조각

이만계(1948). 조선교육사상,하, 서울:을유문화사.

이영훈(1988).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서울:한길사.

정순목(1986). 퇴계의 교육철학. 서울:지식산업사.

제주4·3연구소(1991). 제주항쟁. 서울:실천문학사. pp.212~216.

제주4·3연구소(1990). 4·3 장정.

제주도지

제주시. 모충사기

한국교육사연구회(1982). 한국교육사연구의 새 방향. 서울:집문당.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1987). 교육사상가평전. 서울:교육연구사.

현상윤(1977). 한국유학사. 서울:민중서관.

Flitner,W., *Allgemeine padagogik*, Stuttgart:Klett-Cotta, 1950.

Monroe, p.,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76.

Ulich,R.,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New York : American Book Company, 1950.

<Abstract>

The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Chuksa Argument on Jeju's Education and its Significance

Yang, Jin-Geon

Chuksa Wiju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deologies that addressed the preservation of Chosun's political system against the outer challenges at the end of the dynasty on the context of the orthodox Sung Confucianism. The ideology was bequeathed by the educational activity of Choi Ik Hyun on his exile and the encounter with Ki Jung Jin through the class held by the local Jeju people such as An Dal Sam.

The patriotic death of Choi Ik Hyun provided Jeju people with a decisive motivation to initiate the local movement of patriotic armies. For example, the local Confucianists created a secret association called 'Jip. Yi Kye'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Furthermore, they raised the army with the close connection with Ki Wu Man and Ki Sam Yun, the grandsons of Ki Jung Jin, who were also associated with the same movement in Jangsung, Junra province. These activities clearly indicate the influence and significance of the Chuksa argument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Influenced by the Chuksa ideology, Jeju's education could reinforce its independent capability. The influence was later succeeded to the cheering movement of Chochun and other ethnic education movement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is reveals the new aspect of Jeju's education.

Key Words : Chuksa Argument, Choi Ik Hyun, the local movement of patriotic armies., ethnic education movements, Jeju's education.